

# 수능, 킬러문항 없고 적정 난이도...기본 변별력은 확보

지난해보다 대체적으로 쉽게 출제  
국어·수학 평이한 9월 모평과 비슷  
의대 겨냥 최상위권 변별에는 한계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초고난도(킬러) 문항 출제를 전영역에서 배제하고 고도 기본적인 변별력은 확보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광주 일부 진학담당 교사는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견주면 쉽게 출제됐던 9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시험이라고 평가했다. 입시 업계는 의대를 겨냥하는 최상위권 수험생을 걸러내는 변별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기사 6.7면>

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최종철 동국대 교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기본방향 브리핑에서 "이른바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과목별 'N수생' 비율을 추정하고, N수생과 재학생의 (선택과목별) 평균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응시집단의 특성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응시자 수는 2004년(18만 4317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천안중앙고 한병훈 교사는 국어영역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고 9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수준이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종로학원은 "매우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쉬웠지만 기본적으로 변별력은 확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도 "쉬웠다고 평가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분석했다.

수학 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대표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작년 수능보다 확실히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심 교사는 "중위권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항을 다수 포함해 출제하는 경향 하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공통과목 22번(수학 I)과 21번(수학 II),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29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을 다소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았다.

학원가에서도 수학 공통과목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돼 지난해 수능보다는 전체적인 난도는 낮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본 변별력은 유지했으나 의대 등의 최상위권을 골라내는 변별력은 낮아질 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광주시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있다고 내다봤다. 선택과목 난이도에 대한 전망도 엇갈렸다. 일부 입시업체는 "지난해 수능 수준으로 어렵게 나왔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수능 출제본부는 영어 영역에 대해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출제했다"고 밝혔다.

EBS는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통해 진숙한 소재가 많이 등장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개념을 다루는 킬러문항은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기본적으로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다수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전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됐다면 전반적으로 지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됐다"며 "수험생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주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가채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수능은 9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시험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하지만, 입시학원가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 의대 진학을 노린 최상위권 변별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로학원은 "특히 국어, 수학 1등급 구간대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원점수로 고득점을 받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수능 성적 통지표는 오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환경보호·경제발전 조화 이뤄야 해양관광 지속가능”

목포서 전남관광개발 포럼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 개최사

‘관광수도 전남’ 방안 모색

2000개가 넘는 울망줄망한 섬, 푸른 바다, 전국의 44%를 차지하는 너른 갯벌 등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전남이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전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대한민국 관광수도 전남'을 열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주관하는 '전남관광개발 포럼'이 (사)한국관광연구학회 후원으로 14일 오후 2시 현대 바이 라한 호텔에서 김여송 광주일보장과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전남도와 22개 시·군 관광 업무 관련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행사는 '신해양 관광시대를 선도하다: 전남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포럼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생각과 정책 방안이 전남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한껏 키워 내, 전남이 대

한민국의 중심이자 세계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사에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가치 있고 풍부한 전남 관광자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전남의 미래가 달라지리라 생각한다"면서 "전남도가 남해안 글로벌 관광벨트 구축으로 대한민국 관광수도 전남을 열어가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군 전남도의회 의장은 "오늘 포럼이 전남 관광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살려내고 국민에게 전남9의 매력을 알리는 실질적 전략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위원장은 이날 '해양관광의 세계적 추세와 인사이트, 전남 다도해의 해양관광 발전 가능성'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해양 관광이 주요 여행 트렌드로 부상되면서 연계된 관광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다도해는 1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풍부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섬 관광, 해양레저, 문화 체험을 결합한 섬 관광의 복합화 및 주민 주도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

조했다.

그는 "미래 해양 관광은 해양 레저, 웰니스, 힐링이 결합하는 경험 중심의 복합 관광모델이 주목받는 시기로,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을 위해서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발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지역 사회의 가치를 고려한 관광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심원섭 목포대 관광학과 교수는 "지역 간 관광협력 성공 사례와 추진 전략"을,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해양레저관광 트렌드 변화와 전남 관광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창규 (사)한국관광연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전남 신해양 문화관광 주도권 확보를 위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원섭 교수, 박경열 실장, 김원수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최진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사무국장,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산업을 활용해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로 육성하기 위한 열린 토론을 벌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임중 증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